

추신수, 시즌 2호포 가동... 팀 승리 이끌어

미네소타전 데뷔 첫 9번 타순 선발 출장, 3점 홈런 포함 5타수 3안타 3타점 3득점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2호 홈런을 스리런포로 장식하며 시즌 첫 3안타 경기와 함께 팀의 대승을 이끌었다. 추신수는 2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 경기에 9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 3점 홈런 포함 5타수 3안타 3타점 3득점 1삼진을 기록했다.

시즌 초반 타격감을 끌어 올리지 못하고 있는 추신수는 데뷔 첫 9번 타순으로 선발 출장해 맹타 휘두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 17일 시애틀전에서 마수같이 홈런 이후 9경기 만에 시즌 2호 홈런을 추가하며 시즌 타율을 종전 0.230에서 0.258(66타수 17안타)로 끌어올렸다.

타점은 10개, 득점은 11개로 늘었다. 첫 타석 좌익수 뜬공에 이어 두 번째 타석에서는 삼진을 당하며 침묵했던 추신수는 2-2 동점이던 6회 1사 1루에서 상대 좌완 타일러 로저스의 2구째 커브를 공략해 중전 안타를 때려내며 1·2루 찬스를 만들었다.

달라이노 드릴즈의 볼넷으로 만루 기회가 이어졌고, 투수 쪽투로 3-2로 앞서 나갔다.

이어 추신수는 엘비스 앤드루스의 2타점 적시타 때 홈을 밟아 득점에 성공했다. 8회에는 팀의 대량 득점의 시작과 마무리를 책임졌다.

선두타자로 나온 추신수는 우완 맷 벨라일의 빠른공을 외야로 날려 보냈다. 미네소타 중견수 바이런 벅스턴이 타구를 잡기 위해 다이빙을 시도했지만 뒤로 빠졌고 그 사이 추신수는 3루까지 내달리며 시즌 첫 3루타를 기록했다.

이번에도 후속 타자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아 이날 경기 두 번째 득점을 올렸다. 8회말 텍사스 타선은 타자 일순하며 11-3으로 크게 앞섰다. 다시 한 번 추신수에 기회가 주어졌다.

2사 1·3루에서 우완 마이클 톤킨의 초구 빠른공에 거침 없이 방망이가 나갔다. 배트 중심에 맞은 타구는 우측 담장을 넘어가며 승부에 쐬기를 박는 스리런 홈런이 됐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활약 등 장단 14안타로 14-3 대승을 거두며 최근 2연패를 끊고 시즌 10승(12패)째를 챙겼다.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4위인 2위 오클랜드(10승 10패)와는 1경기 차에 불과하다.



추신수는 2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 경기에 9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 3점 홈런 포함 5타수 3안타 3타점 3득점 1삼진을 기록했다.

/김민근 기자

순창군, 5월 테니스대회 다채

순창군의 5월이 테니스대회로 뜨거워 진다. 군은 오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6일간 순창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에서 열리는 한국초등연맹회장기 테니스대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테니스대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한국초등연맹회장기 테니스대회는 전국초등학교 1급 대회로 한국초등테니스연맹(회장 나귀현)에서 주최하며 전라북도테니스협회(회장 정희균)에서 주관하는 대회다.

113개팀(남자 58, 여자 55) 500여명의 선수 및 임원, 지도자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로 연휴를 맞이하여 학부모들도 대거 참여해 응원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진행은 새싹부는 단체전, 10세, 12세부는 단체전과 개인단식으로 진행되며 단체전에서는 학교 간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5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제52회 전국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14세, 16세, 18세)겸 제25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과전 평가전이 열리며, 5월 27일에는 제5회 교육부장관기 전국 시도교육청 테니스대회가 개최된다.

4월말부터 5월까지 약 17일간 순창에서 테니스대회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순창군 체육관계자는 "17일간 개최되는 테니스대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순창군이 스포츠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순창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많은 전국대회를 유치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시장배 생활체육나비골프대회 내일 개최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스포츠인 나비골프 저변확대를 위한 '제4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나비골프대회'가 열린다.

전주시는 내일 전주 월드컵골프장에서 국내나비골프 동호인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생활체육나비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전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 전주시나비골프연합회(회장 양문식)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나비골프 회원들과 학교에서 나비골프를 배우고 있는 어린이, 만18세 이상 일반인 등이 참가해 열띤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대회는 한국나비골프협회 경기규칙에 따라 스트로크 플레이 결과를 통해 우승자를 가리며, 스코어가 동점일 경우에는 스코어 카드상의 백 카운트방식(경기후반 9홀의 타수가 적은 자가 상위)으로 결정된다.

안동일 전주시 체육산업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에 맞춰 각종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평창 조직위, 올림픽 개최지역 국토 대청결 운동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27일 "평창올림픽 개최 지역 국토 대청결 운동을 28일 대관령면 황계리 일원 및 알펜시아 스포츠 파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직위와 강원도, 평창군, 평창지역 시민단체 등 약 250명이 참여한다.

조직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인 대관령면 황계리 일원 동절기 방지 폐기물과 알펜시아 스포츠 파크의 테스트 이벤트 이후 경기장 장류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1호 아프리카 메이저리거' 은고에페, 데뷔 첫 타석 안타

시카고컵스 에이스 존 레스터 상대로 중전안타 기록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기프트 은고에페(27·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첫 아프리카 출신 선수로 기록됐다.

은고에페는 데뷔 타석에서 안타를 때려내며 역사적인 날을 자축했다.

피츠버그는 27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벌어진 시카고 컵스와 경기를 앞두고 트리플A에서 뛰던 내야수 은고에페를 25인 로스터에 등록했다.

강경호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올 시즌 주전 3루수로 나서고 있는 데이비드 프리즈의 허벅지가 좋지 않아 마이너리그 유망주인 은고에페를 불렀다.

은고에페는 25인 로스터에 이름을 올린 첫날 컵스를 상대로 4회초 2루 대수비로 출전하며 데뷔 무대를 가졌다.

경기 중간 포수 프란시스코 사벨리아와 3루수 조쉬 해리슨은 박리고 데뷔전을 치르는 은고에페의 심장 박동을 체크하기 위해 그의 가슴에 차레로 손을 대보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잡혔다.

긴장한 은고에페는 몇 차례 크게 심호흡

을 해보기도 했다.

4회말 선두타자로 나선 은고에페는 컵스 에이스 존 레스터를 상대로 2루 베이스 옆을 스치며 내야를 빠져나가는 중전안타를 때렸다.

피츠버그 홈 팬들과 덕아웃의 동료들은 박수를 보내며 은고에페의 첫 안타를 축하했다.

컵스 선수들도 은고에페의 타구를 피츠버그 덕아웃 쪽으로 굴러주며 기념구를 전달했다.

은고에페는 이날 2타수 1안타 1볼넷 1삼진하며 데뷔전을 마쳤다. 팀도 컵스 에이스 레스터를 상대로 6-5로 승리했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com은 "이날 경기에서 클린트 허들 감독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쏟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던 은고에페가 데뷔 타석에서 안타를 쳤다"고 보도했다.

은고에페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1호 아프리카인 메이저리거'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메이저리그에 아프리카계 흑인은 많지만 이들은 모두 미국이나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 출신이다.

순수 아프리카 국적을 가진 선수는 은고에페가 처음이다.

지난 2008년 9월 피츠버그와 계약하며 마이너리그 꾸준히 기량을 갈고 닦았다. 올 시즌 시범경기에서 타율 0.429(42타수 18안타)로 대단한 방망이를 자랑했다.

은고에페는 지난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은고에페는 27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데뷔 첫 안타를 때려냈다.

/김민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